

장흥엔 아파트 지을 땅이 없다

현실 안맞는 건축 행정 탓... 일반 주거지용 땅 극히 미미

郡의회 '12층 이상 제한' 조례도 발목 잡아

공직자 등 집 못구해 광주·화순 등 출퇴근

농·어촌지역에 대한 건축 행정의 현실에 맞지 않아 재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장흥군의 경우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제 2·3종 일반주거지역 면적은 전체 주거지역 37.74km²의 0.012%인 0.48km²(1만4천520평)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 지난 2005년 주변 경관을 해친

다는 이유로 제 2 주거지역내 0.47km²에 대해 12층 이상은 지을 수 없다고 조례를 개정했다.

이처럼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부지가 협소해 주택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실정이다. 장흥지역 아파트 건축에 나서지 않고 있다.

현재 장흥지역에는 연립주택을 포함한 공동주택 세대수가 전체 가구의

0.089%인 1천756세대에 그치고 있다.

이때문에 공직자를 비롯해 장흥지역에 발령받은 유관기관 종사자들이 아파트를 구하는데 애를 먹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마땅한 거처가 없어 광주나 화순에서 출·퇴근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역행하고 있다.

특히 최근들어 고유가 여파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LPG를 사용하는 아파트를 선호하는 주민들이 늘고 있으나 신규 건축물량 부재로 공급이 수요를 따르지 못하고 있다.

현재 장흥지역에서는 지난 2006년

말 부산지역 S모 건설업체가 아파트 96세대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오는 2010년께 주택공사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300세대 규모의 임대 아파트 건설을 계획하고 있을 뿐 대단위 민간 아파트 건설은 기대하기 힘든 실정이다.

그럼에도 군청이나 군의회 등 관계 기관에서는 주민들의 주택 수요를 고려한 도시계획 재정비나 층수제한 조치 해제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어 주택정책이 타당행정에 그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장흥=김용기기자 kykim@

순천 시내 봄꽃 6만2천 송이 '활짝'



시청 앞 등 순천시내 주요 도시에 튜울립과 팬지 등 봄꽃이 활짝 피어 거리를 화사하게 장식하고 있다. 순천시 농업기술센터는 올해 500여개 대형 화분에 6만2천 송이의 봄꽃을 심었다.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

축산기술연구 이어 통계청 출장소 유치 강진군 지역경제 '활력'

강진군이 공공기관의 잇따른 유치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강진군은 지난해 전남축산기술연구소에 이어 최근 국가기관인 기획재정부 산하 광주·전남지방통계

청 출장소를 유치했다.

특히 이번 통계청 강진출장소 유치는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중앙 정부의 업무조정과 기구개편 축소 등으로 행정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확정된 것이어서 더욱 의미가 크다.

3월 중 개청을 앞두고 있는 강진출장소는 우선 군내에 임시 사무실을 마련하고, 강진종합운동장 입구에 신청사를 신속할 계획이

다.

통계청 강진출장소가 개청되면 46명의 임직원이 상주 근무하게 되며 강진을 포함한 장흥, 완도의 통계업무를 관할하게 된다.

그동안 강진군은 '지방통계청' 유치를 위해 임시사무실 마련 및 근무 재산 사용승낙 등 발빠른 맞춤형 유치전을 펼쳐왔다.

한편 지난해 유치한 전남도 축산기술연구소는 작전면 일대에 부지를 매입하는 등 후속 절차를 밟고 있다.

/강진=박진표기자 lucky@

해남군 '스포츠 마케팅' 활발

중·고 배구연맹전 전국단위 대회 잇따라 열려

해남에서 전국 단위 스포츠 대회가 잇따라 열린다.

해남군에 따르면 오는 21일부터 7일간 우슬체육관에서 '2008년 춘계 전국 남녀 중·고 배구연맹전'을 시작으로 다음 달 '전국 고교 축구대회', 5월 '전국 생활체육테니스대회', 6월 '전남 생활체육배구대회' 등 굵직한

대회가 잇따라 열린다.

특히 중고배구연맹전에는 49개 팀 1천여 명의 선수가 출전할 것으로 보여 숙박업소, 음식점 등의 호황이 예상된다.

또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전국 고교축구대회에는 40개 팀 2천여 명이, 전국생활체육테니스대회 600여 명이

참가할 것으로 보인다.

해남군은 전국 단위 대회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반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단위 대회 추가 유치와 함께 훈련단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해남=박진표기자 lucky@

영암 쌀·일본 쌀으로 '韓日 상생 떡' 만든다

4월 왕인축제 때

한국과 일본의 문화적 상생을 기원하는 이색 행사의 하나로 한·일 합작 떡이 만들어진다.

영암군은 "다음 달 5일 개막하는 '왕인문화축제' 때 한·일 상생 프로젝트를 '왕인 천자문 떡'을 만들고 '천인(千人) 천자문' 제막식 등이 열려 어느 해 보다 의미 있는 축제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이번 축제 때는 영암군과 일본 히라카타시 간 자매도시 선포를 기념하고 한·일 양국의 문

화적 상생과 공영을 바라는 의미에서 영암 달맞이 쌀과 일본 쌀로 왕인 천자문 떡을 만들어 관람객들에게 나눠주는 특별 이벤트가 마련된다.

또 군서면 왕인 공원의 랜드마크가 될 '왕인 상징 조형물 천인 천자문' 제막식도 열린다.

이 천인 천자문은 한국과 중국, 일본의 명사 1천 명이 각자 육필(肉筆)로 쓴 천자문을 영암의 석공이 붙여 새겨 만든 것이다.

올해 왕인 축제는 다음 달 5일부터 8일까지 열린다.

/영암=박진표기자 lucky@

탐진강 연어 20만마리 방류



장흥군 수산업경영인 연합회와 지역 주민 등 200여명은 지난 15일 장흥을 탐진강 고수부지 징검다리에서 연어 치어 20만 마리를 방류했다. 장흥군은 지난 2002년부터 탐진강에서 연어 치어를 방류해 왔다.

/장흥=김용기기자 kykim@

"함평을 배우자"

세계 나비·곤충엑스포 개막 한달 앞 엑스포 준비 지자체들 방문 잇따라

2008 함평 세계나비·곤충엑스포 개막을 한 달여 앞두고 세계엑스포를 준비중인 자치단체들의 함평 방문이 잇따르고 있다.

이화열 군수를 비롯한 35명의 경북 고성군 관계자들은 지난 17일 함평군을 방문, 2008 함평 세계나비·곤충엑스포 준비 상황을 벤치마킹했다.

2009년 공룡 세계엑스포를 준비하고 있는 고성군 벤치마킹단은

이날 함평군에서 세계 나비·곤충엑스포의 중점 추진계획과 진행사항을 청취한 뒤 엑스포 공원을 방문해 주요 시설을 둘러봤다.

이에 앞서 지난 14·15일 이틀간 2010년 한방바이오텍스포를 준비중인 임태영 제천시장을 비롯한 공무원과 의회 의원 42명으로 이뤄진 방문단도 함평을 방문했다.

이들은 군청 소회의실에서 이석

형 함평군수로부터 '블루오션과 창조경영'이라는 제목의 특강을 듣고 군청 현관에 설치돼 있는 함평군 나비 브랜드 '나르다(Nareda)' 매장을 둘러봤다.

또 함평 엑스포공원에 둘러싼 평천 습지공원과 조경, 시설 등을 벤치마킹했으며 이어 자연생태공원과 생활유물전시관 등을 관람했다.

임태영 제천시장은 "매우 열악한 여건의 농촌지역 자치단체인 함평군이 공직자와 군민들의 남다른 열정과 마인드를 앞세워 농촌지역 자치단체 개발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며 "실제로 와서 현장을 둘러보니 2008 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의 대성공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함평=박진표기자 pyj4079@

등산, 낚시, 레저 활동의 필수품!!

SONY FM/AM 라디오(정품)

녹취용, 학습용 고성능 IC레코더

MP3 파일 재생용 데이터 저장가능한 IC레코더

▶ICD-UX 시리즈◀

- ICD-UX 80
- 저장 50시간 녹음가능
- ICD-UX 70
- 저장 20시간 녹음가능

또렷한음질

ICF-S10NP2 W19,000원

062-522-2000

한국외식산업(주)

스카이뷰페 OPEN

새롭게 탄생하였습니다

062-262-2278

매점상점